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환승 편리해진다

- 지하철 1·4호선 서울역과 인천공항철도간 직결환승통로 설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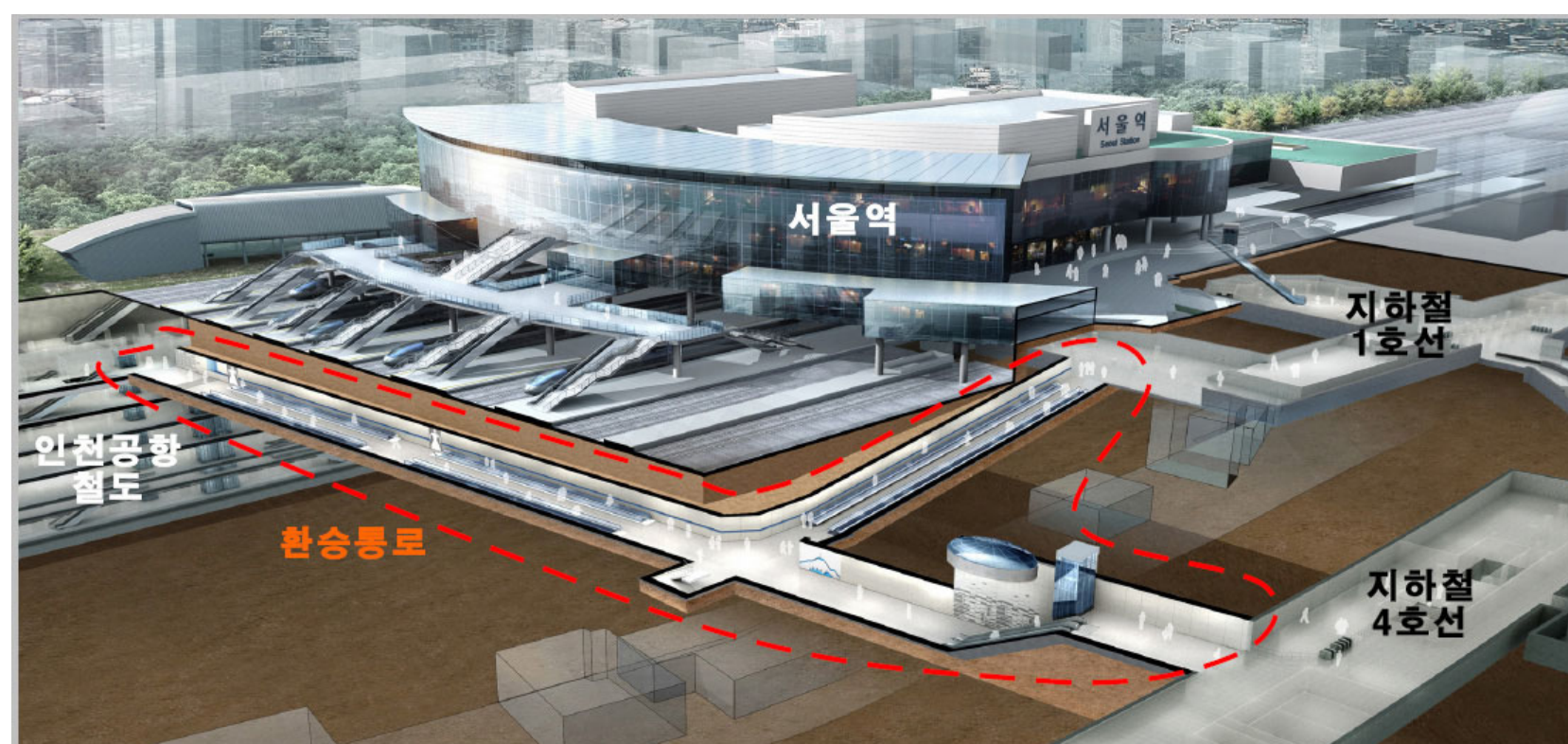
서울지하철 1·4호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철도를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서울역 환승통로가 설치된다.

공단은 서울지하철 1·4호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철도를 갈아탈 때 지상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해야 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결환승통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2013년말까지 사업비 418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역 하부(지하 11m)로

300m의 직결환승통로(폭7.4m, 높이4.9m)를 설치하면, 현재 700~500m인 환승거리가 255~365m로 대폭 단축되고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moving walk),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면 5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객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양성직 일반철도차장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열차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특수 지하굴착공법(PRS)으로 안전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환승통로, 지하철 4호선

신설 영동선 솔안터널 환기/방재시설 시뮬레이션

- 국내최장 Loop형 터널 6월말 개통대비 -

공단은 6월말로 예정된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사업 개통에 대비해 5월 17일부터 8일간 솔안터널(국내 최장의 Loop형 단선터널, 16.24km)에 설치된 환기/방재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99년12월에 착공하여 13여년에 걸쳐 총사업비 5,368억원이 투입된 영동선 철도

이설사업은 설계당시로는 국내 최초로 터널 방재시스템을 적용, 운행 중 터널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터널내 열차 교통을 위한 무인교행역은 환기/방재 시설(소화기구, CCTV, 급배기 시설 등) 및 대피통로를 갖춰 화재진압과 대피가 가능한 구간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개소의 사갱은 구간차 진입도로(2차로) 및 환기/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본부 하삼호 PM부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시설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T.A.B 및 비상상황에 대비해 환기시설의 제연성능(除煙性能)을 사전 검증하는 2가지 시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 시험,조정,평가

영동선 동백산~도계 구간 신설선이 개통되면 열차 안전 운행이 확보되고, 운행시간 단축 및 수송력 증대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터널 환기/방재 시설현황



공단-철도연, 궤도기술발전 도모

- 제1회 궤도분야 기술협의회 개최 -

기술본부 궤도처(처장 최상영)는 궤도기술력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일 제1회 궤도분야 기술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도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공단과 철도연 양기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있게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공단과 철도연간 궤도분야 실무기술진으로 구성된 최초의 협의 기구로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궤도기술력을 보완하고 궤도분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이다.

첫 협의회에서 공단과 철도연은 KRS(한국철도표준규격) 및 공단 규격서에 대한 기술검토와 사전제작방식의 콘크리트궤도(슬래브궤도)의 개발현황 및 계획에 대해 상호 기술교류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최강준 기술본부장은 이날 "공단이 철도연과 궤도실무기술자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을 통해 궤도기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례회를 통해 양 기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궤도처는 철도연간 궤도기술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김시철 기자)

수도권고속철도 T/F팀 구성 운영

- 개통 공정에 차질없이 보상협의 추진기대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는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물건조사를 적기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11.5.27)로 승인되어 2014년 12월말 개통 예정으로, 사업승인 이전부터 사전절차 준비를 위한 물건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수서정거장 부지 내 비닐하우스 영농인들이 주거용 농막에 거주함을 이유로 이주 및 생활대책(임대아파트 및 상가임주권)을 요구하며, 극렬하게 저항함에 따라 업무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본부 시설운영처(처장 이민택)는 지난 4월 26일 수도권고속철도 T/F팀을 구성(5개조, 93명)하고 관계기관 협조하에 사전 계획을 수립 치밀하게 운영한 결과, 그 동안 조사하지 못했던 잔여 비닐하우스 223동 조사를 완료하였다.

현장 진입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의 극렬한 저항과 오물투척 등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T/F팀 지휘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도권본부 전 직원들의 의지와 일치된 마음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유병영 남부옹지부장은 5월중 보상계획 공고 및 소유자 열람을 거쳐 개통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적극 협의로 신규 수익 창출

- 마산역인근 재래시장 유상허가로 연 7천만원 수익창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 시설운영처는 마산역인근 번개시장 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0-3번지 외 6필지, 2,762㎡)에 대하여 유상사용허가를 승인하고 매년 창원시로부터 7천만원의 사용자 수익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시설운영처는 마산역인근 재래시장(번개시장)의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에 대하여 지난 해 11월부터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경제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재래시장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국유지 사용료를 창원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다.

그 간 마산역인근 재래시장(번개시장) 국유지는 노점상, 무단경작 및 폐기물 방치 등으로 민원 다발 개소로서 국유재산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지역이었으나, 금년 공단과 창원시가 상호 협조하여 위 국유지를 정비·임대함으로써 마산역인근 환경개선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래시장 현대화 정비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여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마산역 새벽시장 상인회에서도 국유지 무단점유



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공단으로 결정에 대하여 반기고 있어 공단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영남본부 재산관리운영부 직원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여 공단 수익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영남본부 김성훈 기자)